

5급 환경공무원의 새해 소망



안경문 | 부산시 환경보전과 교통공해팀장

지 난해 1월 말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의 환경지속성 지수는 크게 5개 분야에 21개 지표로 평가하여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 지수는 146개 중에 122위로 평가되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환경공무원의 성공적 환경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5 개 분야를 보면, 먼저 환경오염 부하량 분야에서 22.2점으로 146위로 나타났고, 다음은 환경의 질 분야에서는 30.6점으로 137위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는 환경위해성 분야, 사회 제도적 대응 능력 분야, 국제적 책임 공유 분야로 평가되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의 환경지속성 지수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환경도 경제라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본다면 세계10위가 되어도 야단인데 세계에서 환경질 분야에 137위와 환경오염 부하량에서는 제일 하위가 되어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점이 더욱 문제이다. 이 평가가 잘 못된 점도 있겠지만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지 못한 난개발의 지수라고 생각하고 개혁이 요구된다. 개발하게 되는 요인은 부산의 하루를 보면, 82명이 태어나고 50명이 사망하며 쓰레기가 3980톤 등이 발생하는 것이 기인하게 된다.

동 물 사회의 환경의 질의 점수는 100점은 아닐지라도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80~90 되는 점수의 환경이다. 사람이 환경을 이용하면서 변화된 환경질의 점수가 70~80점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환경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므로 낙제점의 환경질은 인간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도시의 환경설계를 제안해 보면, 먼저 재원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도 처리인 3차 처리로 질소,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다음은 2차 처리인 활성오니법을 건설하고,

다음은 1차 처리인 스크린으로 부유물을 제거하는 시설을 건설한 후에 아파트나 건축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나 건물 허가를 먼저 하느냐,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느냐 이 점만 보면 환경지속성 지수의 점수를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부 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면제된 정화시설은 건물의 규모로 환산하여 하수처리장 뒤편으로 톤당 476천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아무튼 건축 허가시 정화시설 설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투자. 후충당으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도시개발은 2개의 정화시설(아파트의 정화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에서 앞으로의 도시 개발은 1개의 하수처리장으로 조기에 건설하여 생활오수를 능률적으로 처리해 보자는 것이다. 꼭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와 같이 시행할 것이므로 개발이전에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적으로 새로 조성하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이름으로 사업 계획서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일선 환경과장)에게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신문에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만약 반영하지 못하는 의견은 최종평가서에 명시하여 도시를 개발하므로 122위의 환경점수에서 4강의 환경점수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개발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